

취임 1주년 기념 청와대 출입 내신기자 초청 오찬 중 말씀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진취적인 미래 희망을 제시하고 싶어...

긴장, 갈등은 가능하나 선입견, 편견을 버리고 서로 이해해야

잘 하려고 하려는 과정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도 줘서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내게도 여러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고 여러분도 저나 대통령을 보는 관점에 많은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전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이 보태지면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소의 긴장,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선입견, 편견을 버리고 서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여러분의 자부심, 직업상의 애로, 추구하는 미래의 가치가 경우에 따라 저와 충돌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저도 마음을 열고 여러분과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대해 주십시오.

‘사회의 분열적 요인’ 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제가 정치적 신념을 달리하는 사람과 맞서온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부당한 논리를 강요하고 참여의 기회, 정당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사회의 분열적 요인’ 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록 설득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정부,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이길까,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진취적인 미래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이 하는 일이 지금보다 덜 중요하고 그 다음 해에는 그보다 덜 중요하게 보일 수 있게 하겠습니다.